

규모의 경제 vs 승자의 저주... 1등 LCC 사운 건 M&A

(會社運命)

지각변동 항공업계

〈中〉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돌입
절차 마무리시 최초 LCC간 M&A
코로나19 변수로 인수차질 불가피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이스타항공도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국적 항공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매각되는 항공사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자인 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약 497만주(51.1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현재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경우 국내 항공시장에서 최초 LCC간 M&A가 성사

되게 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는 배경에는 '규모의 경제' 논리가 자리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할 경우, 2위 국적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비견되는 거대 LCC(저비용항공사)가 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시장에서 국제선의 시장점유율(외항사 제외)은 각각 ▲아시아나항공 22.8% ▲제주항공 13.8% ▲이스타항공 5%다. 뿐만 아니라 국내선에서는 이미 ▲아시아나항공 19.3% ▲제주항공 14.8% ▲이스타항공 9.5%로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앞서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설에 대한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은 물론 제주항공도 대부분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되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존하기도 힘든 이례적인 환경 속에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까지 떠안을 경우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달 28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기재 정정을 통해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의 최종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 같은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득 예정일은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해,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로 변경됐다. 또한 제주항공이 발행 예정인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납입일도 기존 지난달 29일에서 내달 30일로 변경 공시됐다.

제주항공이 인수 의지를 재차 밝히고 나섰지만,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만큼 여전히 인수 무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8년 기준 부채비율 약 484.4%, 자본잠식률 47.93%로 부분자본잠식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스타항공은 총자산 1442억원, 부채 2074억원으로 결국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전 노선이 운항 중단돼, 현재 경영난은 더 심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체납 등 잡음이 이어질 것

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월 급여의 40%만 지급하고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직원 350여명의 구조조정을 놓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과 갈등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 측은 사측에 정리하고 중단과 함께, 제주항공에도 고용유지협약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어쨌든 인수 의지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딜 조건을 조정할 것인지 등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수 무산을 단정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장사가 잘 될 때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비용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제주항공 자체만으로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이스타항공까지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모델이 LG 벨벳 예약 판매에 참여했을 때, 제공되는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LG 벨벳' 출고가 최대 50% 할인

24개월 사용후 제품 반납 조건
8일부터 14일까지 예약판매 실시

LG전자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스마트폰 'LG 벨벳'의 가격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LG 벨벳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혜택 프로그램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구매해 24개월간 사용한 후,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 최대 50%를 할인받는 프로그램이다. 반납 후, LG전자의 프리미엄 단말기를 재구매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고객 체감 가격은 낮아진다. 예컨대 LG 벨벳을 구매하고 월 8만원의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고객은 단말기 가격의 최대 50%인 44만9900원을 할인받는다.

또한 통신사별 요금제에 따른 선택 약정할인(25%)을 더하면, 48만원(24개월×8만원×0.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LG전자는 LG 벨벳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업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LG전자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LG 벨벳 예약판매도 실시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매장이거나 LG베스트샵에 직접 방문하거나, 예약판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LG전자는 예약판매에 참여한 고객에게 'LG 푸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캐릭터 액세서리팩', '스마트폰용 짐벌' 중 하나를 제공한다.

LG전자는 LG 벨벳 출시를 기념해 예약판매 참여와 상관없이 6월 말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 핑수, 카카오 캐릭터 등 전용 케이스 세트도 증정할 계획이다.

LG 벨벳은 물방울 카메라와 3D 아크 디자인 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이다. 6.8형 대화면임에도 너비가 74.1mm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했고, 후면 커버도 동일한 각도로 구부려 하단에서 보면 가로로 긴 타원형 모양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BMW, 2023년까지 전동화모델 25종 출시

'PHEV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토살롱
올해 PHEV 등 전동화 라인 5종 추가

글로벌 명차 BMW가 친환경 차량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PHEV)'로 국내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PHEV는 연비효율성이 우수한데다 친환경 차량이어서 향후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BMW그룹 코리아는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PHEV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오토살롱을 열었다.

BMW는 올해 PHEV 2종과 순수 전기차 3종 등 전동화 라인업을 5종 추가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총 25종의 전동화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BMW가 친환경 모델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PHEV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차 모터를 탑재, 두개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하이브



BMW 그룹 코리아 전동수 트레이닝 아카데미 매니저가 BMW PHEV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리드 모델과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충전소켓을 적용해 외부 충전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가 저속구간에서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연기관 엔진을 구동하는 것과 달리 PHEV는 순수 전기만 이용해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에 가깝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PHEV는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한다. 순수 전기차의 한계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전기차에 비하면 PHEV의 전기 주행가능거리는 10분의 1 수준으로 짧지만 뛰어난 활용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심에서는 모터 주행으로 이용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엔진 주행으로 변경하면 스스로 주행 중 배터리를 충전한다.

/양성운 기자 ysw@

“진짜 실란트 찾으면 피자 콜라세트 드려요”

KCC '진짜 실란트를 찾아라' 이벤트

KCC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 '진짜 실란트를 찾아라'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CC가 생산하는 건축용 실란트 제품을 맞추는 퀴즈로, 영상 상을 통해 제시되는 3가지 중 하나를 골

라 댓글을 통해 정답을 맞추면 된다. 건축용 실란트는 KCC가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실리콘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창호나 건축자재의 접합 부위나 틈을 채워주고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여준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KCC 페이스북을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정답을

댓글로 남긴 후 친구 소환 기능을 통해 널리 알리면 된다. 정답자 중 15명을 추첨해 피자 콜라 세트 구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KCC는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벤트 상품으로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킨 이용권, 편의점 상품권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